"협의회 뒤에 숨나" vs "도민과 약속 지킬 것"

제주 제2공항 정책 결정 놓고 위성곤 지사·도의원 공방
위 지사 "내년 상반기까지 의견 수렴" 기존 입장 고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상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두고 의회와 도정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일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위성곤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의원들은 제주도가 올해 하반기 구상하는 갈등조정협의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캐물었다. 이 과정에서 위 지사가 신중한 정책 결정 의사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갈등조정)협의회 뒤에 숨어 있다", "정치 뒤에 숨었다"라는 수위 높은 발언도 나왔다.

이날 위 지사는 김경애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제주 제2공항 경제 파급효과를 묻는 질문에 "2027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제2공항 조성을 전제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말씀드리는 것은 도정의 갈등 해결 기조와 도민 의견 수렴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공공갈등조정)협의회 뒤에 숨어 있으면 안된다"면서 "도정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사람은 지사님이다"며 꼬집자, 위 지사는 "갈등조정협의회는 어떻게 결정할지 절차와 과정을 도지사에게 권고하는 기구로, 찬반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효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2공항 관련 "공론화를 하겠다는 것은 (지사님이) 정치 뒤에 숨는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 지사는 "그 말씀은 도민과의 (선거 과정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제주 제2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위 지사의 신속한 정책 결정을 촉구했고 이에 위 지사는 "고민을 알고 있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3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청년·인구 정책 부서 통합 놓고 공방

정다운 "정부 정책과 부합 의문"
위 지사 "청년 담당 인력 늘어"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조직 개편으로 청년 정책 부서와 인구 정책 부서를 통합한 것을 두고 제주도의원과 위성곤 제주지사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정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민선 9기 도정이 청년정책담당관과 인구정책담당관을 합쳐 '청년정책담당관'으로 개편한 것에 대해 "겉으로는 부서 명칭에 청년이 유지됐지만 청년 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매년 3000명 이상 청년이 제주를 떠나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 정책과 인구 정책 부서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는 게 청년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청년정책담당관은 정원 16명에 청년정책팀과 청년지원팀, 대학정책팀 등 3개 팀을 둔 부서였지만 민선 9기 도정에서는 조직 개편으로 인구정책담당관을 흡수해 ▷청년 정책(6명) ▷청년 지원(5명) ▷인구 정책(4명) ▷외국인이민정책(3명) 등 4개 팀에 정원 18명 규모 부서로 조정됐다.

이를 두고 정 의원은 민선 8기 도정에 비해 민선 9기 청년 정책 기조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했지만, 위성곤 지사는 수긍하지 않았다.

위 지사는 "인구 정책 부서와 청년 부서를 통합해 (청년 분야 담당 인력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당자 숫자가 더 늘었다"고 반박했다.

위 지사의 이같은 해명은 기존 청년정책담당관실 소속으로 편제됐던 대학정책팀(정원 6명)이 교육정책협력과로 이관된 점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 대학정책팀이 해제된 것이 아니라 기능을 유지한 채 다른 부서로 이동한 것 뿐이기 때문에 청년 분야 담당 인력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숫자 면에서는 더 늘었다는 것이다. 이상민기자

제주도의회 4일 도정질문 요지(질문 순)

학교복합시설 도서관 건립 의견은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도서관 건립에 대한 의견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재설계 및 지속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치안 신뢰 회복 및 안정망 구축 방안은.

서귀포터미널 활용도 제고 방안은

▶강명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륜동)=서귀포시 터미널 활용도 제고 방안은. 서귀포 혁신도시 활성화와 상생협력 의지는. 서귀포시청 제2청사 활용방안은. 민선 9기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추진 방향은.

도시교통정책에 대한 견해와 대안은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민선 8기에 추진했던 도시교통정책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안은. 민선9기 'AI 대전환' 성찰과 과제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은.

유기·유실 동물 관리체계 문제점은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유기·유실동물 발생 실태 및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대책은. 항공기 운항 감소 및 소형화에 따른 화물운송 대책은.

농업기술원 개발 품종 보급·확대방안은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1차산업의 중장기 발전방향은. 농업기술원 개발 품종의 보급확대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은. 추자와 서부 해상풍력발전 추진에 대한 입장은.

장애인체육 활성화 방안은

▶강영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서귀포의료원과 제주권역재활병원의 각 역할과 연계 방안은. 장애인체육 활성화 방안은.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현실화 계획은. 유휴 공공시설 활용한 청소년 복합공간 조성 계획은.

청년일자리 정책 방향은

▶김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제주지역 안전관리체계 개선과 도민·관광객 신뢰 회복 방안은. 제주 청년 고용 현황과 청년일자리 정책 방향은. 재일제주인 1세대의 정확한 실태와 지원 방안은.

필수의료 인력 안정적 확보 방안은

▶임혜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필수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지역 정착 방안은.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사후 활용방안은.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제주지역 유치를 위한 노력은.

제주 읍면지역 주유소 2곳 심야 영업 시작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 오후 11시까지 문 열어

제주도 읍면지역 주유소 2곳이 3일부터 심야 영업을 시작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애월읍 금성주유소와 구좌읍 한동주유소를 심야 주유소 시범 대상으로 선정해 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심야 주요소는 오후 11시까지 문을 연다. 원래는 오후 8시까지만 영업을 했다.

제주도는 도내 읍면지역에선 심야에 문을 여는 주유소가 없어 주민과 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 불편이 이어지자 이를 해소하기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심야 주유소로 선정되면 오후 8시 이후 야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홍보비를 지원 받는다.

앞서 도가 심야 주요소 시범 운영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8월 6일부터 13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애월읍 1곳과 조천읍 2곳, 구좌읍 1곳 등 모두 4곳 주요소가 신청했다.

도는 4곳을 대상으로 운영 인력 확보 여부와 비상 상황 대응계획, 지역별 연료 공급 여건을 심사해 애월읍과 구좌읍에서 각각 1곳을 선정했다. 시범 운영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도는 심야 주유소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나머지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에 나선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참애국·참전우·참봉사」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제주도지부 서귀포시지회
"파월 62주년 기념 회원 만남의 장"

62년전 젊은 나이에 조국의 명령으로 세계평화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걸고 월남전쟁에 참전한 젊은 용사들이 노병이 되어 이제 다시 만나 회포를 풀고자 서귀포시지회에서는 **"회원 만남의 장"** 행사를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으니 월남전참전자회 서귀포시지회 회원은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2026년 9월 8일(화) 10:10

■ 장 소
김정문화회관(서귀포시 김정문화로 36)

■ 연락처
사 무 실 ☎763-5066

2026. 9.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서귀포시지회
지회장 강 문 숙

성산읍분회장 오길일 표선면분회장 부대옥
남원읍분회장 김동삼 서귀동부분회장 오승인
서귀중앙분회장 김성민 서귀동홍분회장 고득준
서귀서부분회장 고창효 서귀중문분회장 신양현
안덕면분회장 조승언 대정읍분회장 고윤덕

해안동
가족묘지 매매

80년대 제주시에서 조성한
사설공원묘지 2부럭

지 번
제주시 해안동 355-61

지 목
묘 지

면 적
665㎡(200평)

연락처
010-5697-5224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큘고리!

쉽게 높이조절되는 큘고리 큘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큘고리'가 있습니다!

큘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재구입비 회수가능
2. 큘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큘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큘고리 작업세트 구성

큘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큘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